
	<h1 style="margin: 0;">가정통신문</h1> <p style="margin: 0;">(2023. 10. 20.)</p>	
<h2 style="margin: 0;">대입제도 개편안 관련 교육 주체 인식 설문조사</h2>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실에서 2023년 10월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해 교육 주체별, 지역별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하오니, ‘2028 대입제도 최종 개편안’에 학교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 설문 기간: 2023. 10. 18. ~ 10. 24. (긴급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설문 대상: 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전체 교직원 중 희망
- 참여 방법: <https://forms.gle/AACuoKS98SRx8gNQ8> 에 접속하여 설문 응답
- 설문 내용

<div style="border: 2px solid #00a65a; border-radius: 15px;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p>(긴급)대입제도 개편안 관련 교육주체(교사, 학부모) 인식 설문조사</p> <p>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입니다.</p> <p>2023년 10월 10일 교육부는 2028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주체별·지역별 의견이 다양하여, 의원실에서 관련하여 긴급 설문을 진행하오니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p> <p>이 설문은 향후 정책 개진에 참고가 될 예정입니다. 이 설문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관련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설문 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10.12.(목)</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black; color: white;">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p> </div> <p>Ⅰ. 기초 조사</p> <p>다음은 귀하의 배경 정보를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p> <p>Ⅱ. 의견 수렴</p> <p>다음은 대입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p>	<p>Ⅱ-1. 현재 대입 수능 과목의 평가 방식은 ‘국어, 수학, 탐구영역’은 상대평가,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산출하는 등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방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미래 사회의 변화와 대학 수학(修學)능력시험의 본 취지에 근거해 볼 때 중·장기적으로 대입 수능 시험 성적은 어떤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Ⅱ-2. 교육부에서 제시한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에서는 대입 수능의 시험 범위로 *선택과목을 없애고, 국어는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를 모두 응시하는 통합형 수능을 치르겠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Ⅱ-3. 현재 대입 수능의 시험 범위에서 선택 과목(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을 제외하고 수능 공통 과목(문학, 독서, 수학Ⅰ, 수학Ⅱ)만 응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Ⅱ-4. 현재 고교 내신에서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은 성취평가제(절대평가)의 성취수준과 상대평가의 석차등급을 함께 표기하지만 사실상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석차등급에 따른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성취수준에 따른 성취평가제(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Ⅱ-5. 현재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은 대입 수능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정시에서 입학 정원의 40% 이상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시 전형에서 이월된 인원을 포함하면 대학에 따라서는 거의 50% 가까이를 선발하는 셈입니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서 정시 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교육부의 권고 조치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	--

2023년 10월 20일

정 명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